

Perspectivity와 ‘自己’*

李恩洙**

<목 차>

1. 서론
2. ‘自己’의 장거리 결속 원리
 - 2.1 Pan(2001)의 ‘Self-Ascription’
 - 2.2 Huang & Liu(2001)의 ‘Logophoricity’
3. ‘自己’의 결속 원리 Perspectivity
4. 결론

1. 서론

생성문법에서 대용사(anaphor)는 ‘결속조건 A’를 준수해야 하며, ‘결속조건 A’의 규정에는 ‘지배 범주’(governing category)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¹⁾

- (1) Binding Condition A (Chomsky 1981)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 (2) The Governing Category
 α is the governing category for β if and only if α is the minimal category containing β , a governor of β , and a SUBJECT accessible to β .

* 이 논문은 2011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원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1), (2)는 Huang & Liu(2001)에서 재인용.

만약 위의 '결속조건 A'가 옳다고 한다면, 재귀대명사(reflexive) 역시 대응 사이므로 현대중국어의 재귀대명사 '自己' 역시 위의 '결속조건 A'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3)과 같은 예가 보여주듯이 '自己'는 지배 범주를 벗어나 '장거리 결속'(Long distance binding)도 가능하기 때문에, '自己'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결속조건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王先生_i 以爲 [李先生_j 懷疑 [許小姐_k 愛上了自己_{i/j/k}]]] (Huang 1994)

Huang & Liu(2001)에 따르면 '自己'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통사적으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언어마다 '지배 범주'의 정의를 달리하여 장거리 결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거리 결속'을 국부 결속(Local binding)의 연속으로 간주함으로써, '自己'가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모두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이 중 두 번째 접근법은 '주어 지향성'²⁾, '차단 효과' 등 '장거리 결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며³⁾, 그들 자신의 분석에서도 '自己'는 LF에서 IP로 부가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Huang & Liu(2001)도 인정했듯이 통사적인 분석만으로는 '장거리 결속'에 관련된 현상들, 특히 '차단 효과'(Blocking effect)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自己'는 모든 잠재적인 선행사가 인칭 면에서 일치할 때만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며, 만약 잠재적 선행사가 인칭 면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장거리 결속'이 차단되는데 이를 '차단 효과'라 한다.

2) '주어지향성'이란 '自己'의 선행사가 일반적으로 주어라는 것이다. 즉, 비주어 특히 목적어에 의해서는 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 小明 給 小華 自己_i 的 書. (Huang 1994)

3) 첫 번째 접근법, 즉 언어에 따라 '지배 범주'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접근법에서는 '주어지향성'과 '차단 효과' 모두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접근법에서 중국어의 지배 범주는 영어와는 달리 모절로 확대되므로, 확대된 지배 범주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모두 선행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절의 주어 역시 인칭에 관계없이 선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4) [他 覺得 [我 對 自己*_i/_j 要求 太 嚴格]] (Huang 1994)

Huang & Liu(2001)의 분석에서 통사적 이론의 기반이 되는 Huang & Tang(1991)은 '自己'가 LF에서 연속적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연속 이동설을 제기한 이유는 주로 '차단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Huang & Tang(1991)은 '自己'의 잠재적 선행사가 둘 이상 있을 때, 다른 잠재적 선행사의 결속을 차단하는 차단자는 '自己'로부터 보다 더 가까운 선행사임을 밝히고, 이러한 차단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自己'가 LF에서 연속적으로 상위절의 IP로 부가 이동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Huang & Tang(1991)은 이미 '차단 효과'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실제 '차단 효과'는 이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즉 잠재적 선행사들의 인칭이 다르기만 하면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칭에 따라 또는 단수·복수에 따라 비대칭적인 '차단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자.

'自己'의 선행사가 보이는 '인식성'(consciousness) 또한 통사적인 접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Huang & Liu(2001)는 '自己'의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인식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5) a. 張三 批評了 自己。
 b. 張三 批評了 自己 的 朋友。
 (6) a. 張三 誇獎了 [[常常 批評 自己 的] 那些人]。
 b. ??張三 誇獎了 [[後來 殺死 自己 的] 那些人]。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국부 결속의 '自己'를 내포하고 있는 (5)의 두 예문은 '張三'이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다. 반면 장거리 결속의 '自己'를 내포하는 (6)의 두 예 가운데 (6a)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항상 비판한다'는 것을 '張三'이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6b)는 '그 사람들이 훗날 자신을 죽일 것임'

을 문장 주어인 ‘장삼이 알 수 없으므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장거리 결속’과 관련된 현상들은 통사적인 분석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기능적인 분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自己’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기능적으로 분석한 두 연구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종합하여 ‘自己’의 결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自己’의 장거리 결속 원리

2.1 Pan(2001)의 ‘Self-Ascription’

Pan(2001)과 Huang & Liu(2001)는 앞에서 제시한 ‘차단 효과’나 ‘인식성 문제’ 등을 기능적인 분석을 통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Pan(2001)의 ‘Self-Ascription’(자아 귀속성) 이론을 검토해 보자.

Pan(2001)은 먼저 ‘自己’의 ‘장거리 결속’ 시 나타나는 ‘차단 효과’가 인칭이 다르기만 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칭의 차이에 따라 차단 효과도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 (7) a. 我_i 不喜歡 李四_j 管 自己_{i/j} 的 事。
 b. 你_i 喜歡 李四_j 管 自己_{i/j} 的 事 嗎?
 c. 李四_i 不喜歡 我/你_j 管 自己^{*}_{i/j} 的 事。
 d. 李四_i 不喜歡 張三_j 管 自己_{i/j} 的 事。

(7a)와 (7b)는 ‘自己’를 포함하는 내포절의 주어인 3인칭 명사구가 모절 주어인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의 결속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7c)는 내포절 주어인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모절 주어의 결속을 차단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d)에서는 두 주어가 모두 3인칭 명사구이므로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8)에서는 내포절에 포함된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自己'를 c-command하거나 sub-command⁴⁾하는 잠재적인 결속자가 아니므로 차단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8)에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들은 장거리 결속을 차단한다.

- (8) a. 張三_i 知道 李四_j 告訴過 你_k 有關 自己^{*_i/j/*_k} 的工作。
 b. 張三_i 說 李四_j 跟 你_k 談過 自己^{*_i/j/*_k} 的事。
 c. 張三_i 認為 李四_j 從 我_k 那兒 聽說了 自己^{*_i/j/*_k} 的分數。
 d. 張三_i 知道 李四_j 在 我_k 家 洗 自己^{*_i/j/*_k} 的照片。

Pan에 따르면, 이상의 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언제나 차단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간주해야만 한다. 그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는 언제나 '자아 귀속자'(self ascriptor)가 되므로 '차단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의 '자아 귀속성'(self ascription) 개념을 살펴보자.

- (9) a. I think I am smart.
 b. You think you are smart.
 c. John thinks he is smart.

1인칭 대명사를 내포하는 (9a)와 2인칭 대명사를 내포하는 (9b)는 각각 모절 주어가 내포절과 관련된 속성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9c)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반드시 모절의 주어에 결속되는 것

4) 대용사의 결속은 c-command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어 채귀대명사 '自己'의 경우에는 '小明的怪脾氣給自己帶來了許多麻煩'과 같은 예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화시켜야만 했다.

Tang(1989)에서 제시된 sub-command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The sub-command condition

β sub-commands α iff β is contained in an NP that c-commands α or that sub-commands α , and any argument containing β is in subject position.

은 아니다. 내포절의 주어는 모절 주어가 아닌 별개의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떤 속성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자아 귀속성’이라 하고, 이때 모절 주어는 ‘자아 귀속자’가 된다. 즉 ‘태도’ 술어의 주어인 모절 주어가 ‘자아 귀속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문장이 누군가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張三知道李四喜歡王五’는 장삼이 내포절의 믿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사실인 세계에 화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화자는 언제나 ‘자아 귀속자’로 해석될 수 있다.

Pan(2001)은 이러한 ‘자아 귀속성’이 ‘自己’의 장거리 결속에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거리 결속 용법의 ‘自己’가 항상 ‘자아 귀속자’에 의해 결속되며, ‘自己’로부터 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자아 귀속자’는 더 멀리 있는 ‘자아 귀속자’를 차단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아 귀속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그 중 가장 현저한 자아 귀속자에 의해 ‘自己’가 결속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는 언제나 ‘자아 귀속자’가 되며 따라서 차단자가 된다. 반면 3인칭 명사구는 수의적 ‘자아 귀속자’이므로 ‘自己’를 장거리 결속하는 선행사가 될 수는 있지만, 차단자가 되지는 않는다.

(10) ‘자아 귀속성’ 自己의 조건

언어 영역 γ 에 포함된 믿음 명제 내에 다른 차단자가 없으면, 그리고 그 때에만 ‘自己’는 γ 내에서 믿음의 보유자, 가장 현저한 자아-귀속자에 의해 결속될 수 있다.

(11) 현저성 조건

γ 에서 α 보다 다음 위계에 관해 더 높은 β 가 없으면, 그리고 그 때에만 α 는 γ 에서 가장 현저한 자아-귀속자이다.

a) 주어 > 목적어나 사격

b) 지배 NP > 피지배 NP

www.kci.go.kr

Pan(2001)은 이렇게 장거리 결속 용법의 ‘自己’가 ‘자아 귀속자’에게 결속되

고, 1인칭과 2인칭 주어는 언제나 '자아 귀속자'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7), (8)의 '차단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Pan(2001)의 '자아 귀속성'은 '自己'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선행사 없이 담화 상에서 결속되는 '自己'에 대해서 그의 설명은 그리 분명치 않아 보인다.

(12) 自己能去那兒嗎?

Can self (I) go there?

(13) 自己爲什麼不去呢?

Why didn't self(you) go?

Pan에 따르면, (12)의 '自己'는 담화 상의 화자에게 결속되며 (13)에서는 '自己'가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에게 결속된다. 또한 (13)을 포함하는 문맥에서 제3자가 담화 상 현저한 존재라면 '自己'는 그 제3자에 결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Pan은 원래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만이 언제나 '자아 귀속자'가 되며, 3인칭은 수의적으로만 '자아 귀속자'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3)과 같이 발화된 문장 내에 선행사가 없어서 문맥을 통해서야 선행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가 현저한 대상이라면 '自己'는 그 제3자에게 결속될 수 있다.

앞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모든 문장은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화자는 항상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따라간다면, (13)은 화자가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自己'는 수의적인 '자아귀속자'인 제3자에게 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0), (11)의 '자아 귀속성'과 '현저성 조건'에도 '自己'가 화자보다 제3자를 우선적으로 선행사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Pan(2001)의 '자아 귀속성' 이론으로는 '自己'의 담화 결속의 예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3)에서 담화 상 2인칭 대명사가 '自己'의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시 Pan의 주장대로 모든 문장에서 화자가 언제나 '자아 귀속자'로 해석될 수 있다면, (13)은 화자가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있는데도 2인칭 대명사가 ‘自己’의 선행사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을 예로 들어보자.

- (14) 終於 做完了 自己的 功課了。 (Chen 2009)
Self(I/you) have finally finished the homework.

Chen(2009)에 따르면, (14)에서 선행사가 없는 ‘自己’는 화자나 청자에게 결속될 수 있다. 이 중 화자에게 결속되는 것은 Pan의 설명에서 자연스럽다. 즉 화자는 언제나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있으므로, 문장 중에 ‘自己’의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14)와 같은 문장에서도 ‘自己’가 화자에게 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己’가 2인칭 대명사에 결속되는 것은 Pan의 설명으로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인다. 모든 문장은 화자가 ‘자아 귀속자’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자가 반드시 ‘자아 귀속자’가 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14)와 같이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 청자가 ‘自己’의 선행사가 된다면, 이는 청자가 반드시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화자에 의해 ‘自己’의 선행사로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언제나 ‘자아 귀속자’로 해석된다는 Pan의 설명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어떤 문장도 화자가 관련 속성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화자’는 분명 언제나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자아 귀속자’라는 것과 화자가 ‘自己’의 선행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다음으로 ‘自己’의 선행사가 보이는 ‘인식성’(consciousness)에 관한 Pan(2001)의 설명을 검토해보자. 앞에서 예문 (5), (6)의 대조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국부 결속되는 ‘自己’와 달리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의 선행사는 반드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거리 결속’에서도 ‘인식성’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 (15) 張三 不喜歡 [那些 批評 自己] 的人。 (王瑩瑩·潘海華 2012)

(15)는 王瑩瑩·潘海華(2012)가 Huang & Tang(1991)의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15)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張三'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張三'은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모를 수도 있다. 가정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張三이 잠수에 관한 동영상 을 보고 있으며, 그는 한 잠수부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이 잠수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張三은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비판받는 그 잠수부가 張三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인식성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15)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王瑩瑩·潘海華(2012)은 (15)를 통해 '自己'의 '장거리 결속'에도 '인식성'이 필연적이지는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의 '자아 귀속성' 이론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자아 귀속성' 이론에서 '自己'의 선행사는 '자아 귀속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15)에서 '張三'이 내포절에서 비판받는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張三'은 내포절의 속성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자아 귀속자'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내포절의 속성을 '張三'에게 귀속시키며, 해당 명제가 참인 세계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화자'이다. 그러나 (15)에서 '自己'는 '자아 귀속자'인 화자에게 결속되는 게 아니라 '張三'에게 결속된다. 이렇게 볼 때 Pan(2001)의 이론은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의 '인식성'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2 Huang & Liu(2001)의 'Logophoricity'

Huang & Liu(2001)는 '自己'의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을 구분하여, 전자는 '결속 원리 A'를 준수하는 '대명사'이며 후자는 화용적인 'logophor'(화자 지시사)라고 주장했다. 'logophor'의 개념은 'logophoricity'(화자 지향성)에서 온 것으로, 이는 Clements(1975)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Sells(1987)가 보충 정리한 것이다. 서아프리카 언어들에는 일반적인 대명사와 다른 대명사가 존

재하는데, 이 대명사는 말이나 생각, 느낌, 의식 상태 등을 전달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개체를 선행사로 삼는다. Sells(1987)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장거리 결속 재귀대명사가 'logophoricity'에 민감하며, 이 개념은 다시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6) a. source: 의사전달의 의도적 행위자
 b. SELF: 명제의 내용이 기술하고 있는 정신 상태나 태도의 소유자
 c. pivot: 명제의 내용이 평가되는 시공의 위치에 관련된 개체

Huang & Liu(2001)는 이러한 Sells(1987)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어 재귀대명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요소 중 몇 가지가 허용되는지는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중국어의 장거리 결속 '自己'의 경우 source와 SELF는 쉽게 '自己'의 선행사가 되지만, pivot은 상대적으로 선행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17) a. 李四說 [張三 常 批評 自己]。
 b. [自己 的小孩 沒得獎] 的消息 使 李四 很 傷心。
 c. ? [張三 來看 自己] 的 時候, 李四 正在 看書。

(17c)는 '李四'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Huang & Liu(2001)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문장은 화자가 단지 '李四'에 감정 이입을 한 것이지, 그의 정신적 상태나 믿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따라서 장거리 결속 '自己'는 'logophoricity'의 하위 요소 중에서 보다 핵심적인 source와 SELF는 허용하지만 pivot은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Huang & Liu(2001)는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의 구분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장 내에 '自己'의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自己'는 보통 1인칭 대명사에 결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18)과 같은 이러한 '自己'의 결속 현상은 통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自己'를 logophor-

본다면 쉽게 설명되는데, 왜냐하면 '화자' 역시 source이므로 '自己'가 source에 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 這個想法, 除了自己, 只有三個人贊成。

장거리 결속 '自己'에 나타나는 '인식성'(consciousness) 역시 장거리 결속 '自己'가 source와 SELF를 선행사로 삼는다고 가정한다면 쉽게 설명된다. source와 SELF는 전달되는 관련 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대립쌍에서 보이듯 장거리 결속 '自己'는 '인식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6) a. 張三_i 誇獎了 [[常常 批評 自己_i 的] 那些人_j]_i。
 b. ??張三_i 誇獎了 [[後來 殺死 自己_i 的] 那些人_j]_i。

더욱이 이러한 인식성은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5)를 통해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국부 결속에서는 이러한 인식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연스런 문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5) a. 張三_i 批評了 自己_i。
 b. 張三_i 批評了 自己_i 的 朋友。

'차단 효과' 역시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차단 효과'는 'logophoricity'의 환경에서 '관점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19)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3인칭 명사구의 '장거리 결속'을 차단함을 보여준다. (19)를 다시 (19)'와 같은 '직접 담화'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19)에서 '自己'는 생각하는 주체인 '張三'을 가리키므로 1인칭 대명사인 '我'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장 내에 외부 화자인 1인칭 대명사나 외부 화자를 전제로 하는 2인칭 대명사가 나타나 있으므로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며 따라서 ‘차단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반대로 모절에 1인칭 대명사가 있고 내포절에 3인칭 명사구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담화’의 형식에서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 a. 張三_i 覺得 我 在 批評 自己_i*。

b. 張三_i 覺得 你 在 批評 自己_i*。

(19)' a. 張三 覺得 “我 在 批評 我”。

b. 張三 覺得 “你 在 批評 我”。

‘차단 효과’는 인칭 외에도 단수·복수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20)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수 명사구는 복수 명사구를 차단하지만, 복수 명사구는 단수 명사구를 차단하지 못한다.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장거리 결속 ‘自己’는 개체의 내적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룹으로서의 복수는 내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단 효과’에서 비대칭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20) a. 李四_i 說 他們_j 常 批評 自己_{i/j}。

b. 他們_j 說 李四_i 常 批評 自己_i*_j。

Huang & Liu(2001)는 ‘logophoricity’를 통해 장거리 결속 ‘自己’의 여러 특징적인 현상들에 대해 매우 자연스런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장거리 결속’에서도 ‘인식성’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15) 張三 不 喜歡 [那些 批評 自己_i] 的 人。(王瑩瑩·潘海華 2012)

(15)는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Huang & Liu(2001)

에 따르면 '인식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내포절에서 비판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張三'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15)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물론 (15)의 '自己'가 pivot을 선행사로 삼는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중국어의 '장거리 결속' '自己'는 반드시 '인식성'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인식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 pivot의 경우에 이러한 문장이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사한 문제가 Huang & Liu(2001)에서도 (21)의 대립쌍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⁵⁾

- (21) a. ?*張三 誇獎了 [[後來 殺死 自己_i 的] 那些人_j].
 b. 張三 誇獎過 [[後來 殺死 自己_i 的] 那些人_j].

(21b)는 (21a)에 비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Huang & Liu(2001)의 설명에 따르면 (21a)는 인식성이 결여되어 좋지 않은 문장으로 여겨지지만, (21b)와 같이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면 문법성을 회복하게 된다.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면 '自己'의 선행사에 화자로부터 '가상'의 '인식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pivot은 관점의 주체이므로, 여기에 화자의 관점이 새롭게 개입된다면 '차단 효과'와 같이 두 관점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1b)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Huang & Liu(2001)의 논리 대로 (21b)에서 외부 화자가 관점의 충돌 없이 3인칭 명사구인 '張三'에게 '가상의 인식성'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장거리 결속되는 모든 '自己'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되는 것으로

5) Huang & Liu(2001)는 (6b)와 (21a)가 동일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성의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논의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문의 문법성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17)의 두 문장은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가 source와 SELF에 결속됨을 보이는 예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에서도 화자가 3인칭 명사구인 ‘李四’에게 ‘가상의 인식성’을 부여한다고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자의 관점, 또는 화자의 인식성의 부여는 (21)과 같이 pivot의 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장거리 결속 ‘自己’의 예에 다 해당된다고 본다.

(17) a. 李四 說 [張三 常 批評 自己]。

b. [自己 的 小孩 沒 得 獎] 的 消息 使 李四 很 傷 心。

두 번째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인식성’은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의 ‘logophoricity’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부 결속’과 구별되는 ‘장거리 결속’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自己’ 역시 일반적으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Huang & Liu(2001)는 국부 결속 ‘自己’를 내포하는 (5)에서 비판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친구라는 것을 ‘張三’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해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5)의 보다 더 일반적인 해석은 ‘張三’이 인식성을 갖는 것이고, ‘張三’이 인식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오히려 굳이 그런 특수한 환경을 가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인식성’은 ‘장거리 결속’ ‘自己’만의 특성이 아니라 ‘장거리 결속’과 ‘국부 결속’을 포함하는 ‘自己’ 전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Huang & Liu(2001)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언어 사실이 예측되지 않는다.

(5) a. 張三 批評了 自己。

b. 張三 批評了 自己 的 朋友。

세 번째, 선행사 없이 담화 상에서 결속되는 ‘自己’에 대해서 Huang & Liu(2001)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문장 내에 선행사가 없으면 담화 상에서 결속되어야 하므로, 이때 ‘自己’는 source인

외부 화자에 결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Pan(2001)이 제시한 예 (13)에서 '自己'는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담화 상 제3자가 현저한 존재라면 '自己'가 제3자에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Huang & Liu(2001)는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自己'의 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13) 自己爲什麼不去呢?

Why didn't self(you) go?

3. '自己'의 결속 원리 Perspectivity

Pan(2001)의 '자아 귀속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문장은 그 문장을 발화하는 외부 화자가 '자아 귀속자'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Pan은 이를 근거로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自己'가 있는 문장에서 '自己'는 '자아 귀속자'인 외부 화자에 결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의 설명이 옳다면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청자나 특히 제3자는 '자아 귀속자'가 될 수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태도 술어의 유정성 주어도 아니고, 선행사가 직접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화자보다도 더 현저한 '자아 귀속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 2인칭 대명사나 3인칭 명사구 역시 '自己'의 선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자아 귀속자'가 항상 '自己'의 선행사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Pan(2001)의 주장과 달리 그가 말하는 '자아 귀속자'와 '自己'의 선행사를 분리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일한 문제가 그의 '인식성'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王瑩瑩·潘海華(2012)는 (15) 등의 예를 통해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의 선행사가 때로 '인식성'을 갖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의 '자아 귀속성'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自己'의 선행사가 '인식성'을 갖지 못할 때 '인식성'을 갖는 것은 바로

외부 화자이다. 따라서 역시 '자아 귀속자'로서의 외부 화자와 '自己'의 선행사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문제가 Huang & Liu(2001)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들은 pivot이 장거리 결속 '自己'의 선행사가 되면 '인식성'을 갖지 못해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면 문법성이 상당히 향상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그들은 이를 화자가 '가상의 인식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상의 인식성' 부여가 '인식성'을 갖지 못하는 pivot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인식성'을 갖는 문장에까지도 적용된다고 본다.

이상 제기된 문제는 모두 외부 화자와 '自己'의 선행사 간의 문제로 귀결되며, 본고에서는 '自己'의 선행사에 관점을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외부 화자라고 본다. 만약 외부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perspective)을 부여할 때 '自己'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Pan(2001)에서 제기된 '自己'의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아 '自己'가 담화 상 결속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自己'가 원래 '관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화자'에게 결속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자.

또한 이러한 설명은 Huang & Liu(2001)에서 제기된 pivot이 인식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화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自己'의 사용은 본래 외부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할 때 나타나며, source와 SELF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인식성'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화자의 관점 부여가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自己'의 사용을 외부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自己'의 관련 문제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예문들은 모두 '自己'의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흔히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自己'의 선행사의 조건 중 하나로 '유정성(animate)' 명사구라는 조건이 제시되곤 했다.

(16) *熱水瓶 打破了 自己。(Huang 1994)

그런데 실제로는 '무정성' 명사구([-animate] NP)도 '自己'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 (17) a. 但見一道精巧的白石拱橋, 在靜止的水面上投下自己的倒影。
 b. 每個氣候類型都有自己的特點。
 c. 每一本書都有自己的特點。
 d. 廣告牌爲別人爭得利益、榮譽, 却犧牲了自己的身軀。

Pan(2000)은 위 예문들을 근거로 '무정성' 명사구도 '自己'의 선행사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17d)의 경우에는 그의 설명과 달리 '의인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예문은 대체로 의인화 작용 없이도 '무정성' 명사구가 '自己'의 선행사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6)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단지 화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온수병'은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16)에서 '自己'의 선행사가 될 수 없는 것뿐이다.

본고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 '관점'을 부여할 때 '自己'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유정성' 명사구뿐 아니라 '무정성' 명사구에 대해서도 화자가 '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점'을 부여받는 대상이 '무정성' 명사구라면, 화용적인 제약에 의해 자발적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쓰이지 못할 뿐이다. 만약 그러한 술어와 함께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의인화'의 작용을 동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식성'의 논의에서도 물론 '무정성' 명사구를 선행사로 삼는 '自己'는 제외된다.

관점을 부여받는 대상은 '무정성'과 '유정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관점'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이다. '무정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自己'의 선행사가 '무정성'이면 이러한 술어와는 함께 쓰일 수

없게 된다. Pollard & Xue(1998)에서 인용한 아래 예문들 역시 술어의 특성 때문에 부정성 명사구를 선행사로 삼지 못하고, 부정성 명사구 안에 내포된 ‘유정성’ 명사구를 선행사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自己’의 선행사가 ‘유정성 명사구’일 때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의도적 행위의 주체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유정성’ 명사구 중에서도 ‘인간성’([+human]) 명사구가 자발적, 의도적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주체이므로, ‘自己’의 선행사는 전형적으로 ‘인간성’ 일 것으로 예측된다.

- (18) a. 張三_i 的 驕傲_j 害了 自己_{i/*j}。
 b. 張三_i 的 信_j 表明 李四_k 害了 自己_{i/*j/*k}。
 c. 張三_i 的 信_j 表明 那本書_k 害了 自己_{i/*j/*k}。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할 때, 문장 내의 모든 성분들이 관점을 부여받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행위, 의식의 객체보다는 행위, 의식의 주체에게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19), (20)에서처럼 전형적인 ‘自己’의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이자 행위자(agent)이다. 만약 (21)처럼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면 주어에 내포된 ‘음모’를 꾸민 행위자가 화자의 관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22)에서처럼 주어가 이미 화자의 관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내포된 명사구를 다시 검토할 필요 없이 주어에 관점을 부여하게 된다.⁶⁾ 이렇게 볼 때 Xu(1994)의 ‘의미역 위계’와 Pan(2001)의 ‘현재성 조건’은 모두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가 통사적, 의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9) a. 小張 打傷了 自己。
 b. *自己 打傷了 小張。
 c. 小李 承認 [自己 打傷了 小張]。

6) 예문 (19), (21)은 Xu(1994)에서, (20), (22)는 Huang(1994)에서 인용하였다.

- (20) 小明_i 給 小華_j 自己_{i/*j} 的 畫。
 (21) 李先生_i 的 陰謀 害了 自己_i。
 (22) 小明_i 的 弟弟 看不起 自己_{i/*j}。

인칭에 따라, 단수·복수에 따라 비대칭성을 보이는 '차단 효과' 역시 화자의 '관점' 부여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7)에서 화자가 내포절의 주어에 관점을 부여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화자가 모절의 주어에 관점을 부여한다면 (7c)의 경우에는 '관점의 충돌'이 야기된다. Huang & Liu(2001)의 관련 분석에 따르면, (7c)를 직접 담화 표현으로 바꿀 경우 내포절 내의 '自己'는 '我'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미 문장 내에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있으므로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의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차단 효과는 결국 (7c)에서 화자가 '自己'의 선행사에 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즉 '自己'의 선행사인 모절 주어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부여하면 내포절의 '自己'에 관점이 부여되는데, 내포절 내에 이미 화자의 관점을 전제로 하는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점의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7) a. 我_i 不喜歡 李四_j 管 自己_{i/j} 的 事。
 b. 你_j 喜歡 李四_j 管 自己_{i/j} 的 事 嗎?
 c. 李四_i 不喜歡 我/你_j 管 自己_{i/*j} 的 事。
 d. 李四_i 不喜歡 張三_j 管 自己_{i/j} 的 事。

이제 '인식성'의 문제를 검토해보자.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할 때 '自己'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관점을 부여받는 대상은 해당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 예들은 국부 결속이나 장거리 결속에서 모두 '自己'의 선행사가 일반적으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Huang & Liu(2001)가 지적한 대로 (17)과 달리 (5)에서는 '인식성'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야만 가능하므로 여전히 일반적인 해석은 아

니다.

- (5) a. 張三批評了自己。
 b. 張三批評了自己的朋友。
- (17) a. 李四說 [張三常批評自己]。
 b. [自己的小孩沒得獎]的消息使李四很傷心。

우리는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의 ‘自己’가 모두 화자가 어떤 대상에 관점을 부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화자는 어떤 대상에 실제 관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관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부여되는 관점에는 ‘인식성’이 필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식성’을 갖는 것이 전형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인식성’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Huang & Liu(2001)에서 제시된 ‘직접 담화 표현’과 같은 효과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自己’가 그 선행사와 절을 달리할 때 ‘自己’를 내포하는 절이 ‘自己’의 선행사의 ‘직접 담화’, 또는 ‘내적인 생각, 감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본다.⁷⁾ (17)의 ‘自己’가 장거리 결속될 때 내포절은 ‘李四’의 말이나 생각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포절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주체인 ‘李四’는 반드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 (21) a. ?*張三誇獎了 [[後來 殺死 自己 的] 那些人]_i。
 b. ?張三誇獎過 [[後來 殺死 自己 的] 那些人]_i。

동일한 해석이 pivot에도 적용된다. (21)에서도 ‘自己’를 내포하는 절이 ‘張三’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21a)는 ‘張三’이 내포절과 같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적 위치에 있으므로 좋지 않은 문장으로 여겨진다. (22b) 역시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Huang & Liu(2001)의 설명대로 화자의 관점이 개

7) 이러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Huang & Liu(2001)의 ‘logophoricity’ 설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설명이 pivot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입되어 문법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본고의 설명에 부합한다. 본래 어떤 대상에 관점을 부여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다. 그러나 화자는 '가상의 관점'을 부여하므로 그 관점을 부여받은 대상은 전형적으로 '인식성'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지 '인식성'을 필연적으로 갖지는 못한다. 그런데 '自己'가 그 선행사와 절을 달리하면, '自己'를 내포하는 절은 관점을 부여받은 대상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인식성'을 갖춰야만 한다. 따라서 (21a)는 좋지 않은 문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성'을 갖추지 못해 문법성이 좋지 않은 문장에서도 '가상의 관점'을 부여했던 화자가 '過' 등을 통해서 자기 관점을 문장에 보임으로써 화자에 의한 '인식성'이 새로이 확보되고, 따라서 문법성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명시적으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기 관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過'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므로, 관점을 부여받은 대상과 화자의 관점이 큰 충돌('차단 효과') 없이 한 문장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사 없이 담화상에서 결속되는 '自己'의 예를 검토해보자. Pan에 따르면, (12)의 '自己'는 담화 상의 화자에게 결속되며 (13)에서는 '自己'가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에게 결속된다. 또한 (13)을 포함하는 문맥에서 제3자가 담화 상 현저한 존재라면 '自己'는 그 제3자에 결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Chen(2009)에 따르면, (14)의 '自己'는 화자나 청자에게 결속될 수 있다.

(12) 自己能去那兒嗎?

Can self (I) go there?

(13) 自己爲什麼不去呢?

Why didn't self(you) go?

(14) 終於 做完了 自己的 功課了。

Self(I/you) have finally finished the homework.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할 때 '自己'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선행사

없이 청자나 제3자에 결속되는 ‘自己’는 쉽게 설명된다. 즉 문장 내에 선행사가 없더라도 화자는 청자나 제3자에게 관점을 부여하며 ‘自己’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설명에서는 오히려 ‘自己’가 선행사 없이 외부 화자에 결속되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나타내려면 직접적으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自己’를 써서 자신에게 ‘가상의 관점’을 부여하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나 (14)의 첫 번째 해석에서 ‘自己’가 외부 화자에게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도, 사실 이러한 문장은 화자의 직접 발화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⁸⁾ 본고는 이러한 문장이 직접 발화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화자가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화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나서 대상화된 자기 자신에게 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自己’의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담화 상 화자에게 결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自己’의 사용 역시 ‘화자의 어느 대상에 대한 관점의 부여’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현대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는 ‘결속 조건 A’나 이를 수정한 조건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잇따라 기능적인 설명을 제기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Pan(2001)과 Huang & Liu(2001)의 연구를 검토한 후, ‘自己’의 결속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Pan(2001)의 ‘자아 귀속자’ 이론과 Huang & Liu(2001)의 ‘logophricity’ 이론의 점검을 통해 우리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

8) Chen(2009)은 ‘自己’의 이러한 용법을 ‘정신적 독백’(mental monologue)으로 표현하였다.

할 때 '自己'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게 되었다.

화자에게 관점을 부여받는 대상은 '무정성'과 '유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정성' 명사구는 화용적인 이유로 자발적,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쓰일 수 없으며 '인식성'의 논의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유정성' 명사구는 '인간성' 명사구를 그 전형으로 삼는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면, '自己'와 그 선행사가 절을 달리할 경우 '自己'를 포함한 절은 그 선행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문에 '自己'를 포함한 절 내에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 '차단 효과'가 발생한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관점을 부여할 때 '自己'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인식성'을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pivot과 같이 인식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다시 자신의 관점을 개입시켜 '인식성'을 보완할 수 있다.

선행사 없이 담화 상 결속되는 '自己' 역시 화자가 그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화자에게 결속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 후 대상화된 자기 자신에게 화자가 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王瑩瑩·潘海華(2012), <長距離“自己”的語義-語用解釋理論及其問題>, 《當代語言學》 14.
- Chen, H.-Y.(2009), 'Logophoricity and Ziji', Preceedings of the 21th NACCL, Volume 2.
- Clements, George(1975) The Logophoric Pronoun in Ewe: Its Role in Discourse. *The Journal of West African Languages* 10.
- Huang, C.-T. J. and Liu, Luther, C.-S.(2001), 'Logophoricity, Attitudes, and Ziji at the Interface', *Long-distance Reflexives*, vol. 33 of *Syntax and*

Semantics.

- Huang, C.-T. J. and Tang, C.-C. J.(1991), 'The local nature of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Long-distance anapho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ang, Y.(1994),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Anapho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 Haihua(2000), *Self-ascription and Mandarin reflexive ziji*.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Pan, Haihua(2001), Why the blocking effect? In Peter Cole, Gabriella Hermon and James Huang, eds., *Long Distance Reflexives*, vol. 33 of *Syntax and Semantics*.
- Pollard Carl J. and Ping Xue(1998), Chinese Reflexive Ziji: Syntactic Reflexives vs. Nonsyntactic Reflexive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7.
- Sells, Peter(1987), Aspects of Logophoricity. *Linguistic Inquiry* 18.
- Tang, C.-C. Jane(1989), 'Chinese reflexive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7.
- Xu, Liejiong(1994), The antecedent of ziji.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2.

< 中文提要 >

現代漢語反身代詞自己'允許長距離約束'，而且用'約束條件A'或者經過修正的約束條件也難以說明長距離約束的有關現象。因此學者們接連提出了一些功能解釋。本文回顧Pan(2001)和Huang&Liu(2001)後，認為自己的使用是說話人給某對象虛擬視點的結果。

從說話人那兒得到視點的對象可以分成'無生'和'有生'NP。'無生'NP由於語用制約不能和自主性述謂共現，也不能具備'認識性'，而'有生'NP的典型成員是'人'。

本文認為，當說話人給某對象虛擬視點，而且'自己'和它的先行語不在同一小句時，包含'自己'的小句表示該對象的想法。這樣我們能解釋自己的阻斷效應和認識性的問題。說話人也可以給自己虛擬視點，這是因為說話人可以先把自己對象化，然後給已經對象化了的自己虛擬視點的緣故。

關鍵詞: 自己、反身代詞、長距離約束、視點、認識性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29.	2013. 2. 1.	2013. 2. 14.	2013. 2. 21.	2013. 2. 28.